

조경단과 준경묘·영경묘의 역사와 풍수 인식

박정해*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경단과 준경묘, 영경묘의 영건 과정과 풍수적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경단은 전주이씨 시조 묘로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역대 왕들이 전례(典禮)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종 대에 이르러 왕실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추숭 사업이 본격화하였다. 이성계의 5대 조부모 묘소인 준경묘와 영경묘 역시 실전(失傳)되었으나, 고종 대에 이르러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이러한 추숭 사업은 당시의 혼란한 정국을 타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당시 논의된 풍수적 특징을 살펴보면, 주룡(主龍)의 행룡 과정과 수구(水口), 한문(扞門)의 형세를 강조하고 있으며, 입수룡(入首龍)과 좌향(坐向)을 핵심 요소로 다루고 있다. 특히 현대에는 그 의미가 퇴색된 택일(擇日)을 매우 엄격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성리학적 가치관에 기초한 조상 숭배 사상과 당시의 긴박한 정치 상황이 복합적으로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조경단, 준경묘, 영경묘, 풍수, 택일

* 한양대학교 ERICA 조교수(풍수 전공)

1. 머리말

조선왕조를 건국한 이성계(李成桂, 1335-1408) 5대조의 묘소를 일컫는 준경묘(濬慶墓)와 영경묘(永慶墓) 그리고 전주 이씨 시조의 조경단(肇慶壇)은 여러 논란을 거쳐 고종에 의해 정리되고 있다. 일종의 추송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근거와 자료가 없는 관계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고종에 의해 정리되는 과정을 정리한 의례는 중요한 연구 자료라 할 수 있는데, 전주역사박물관과 삼척시립박물관이 주도하여 의례의 국역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연구를 훨씬 수월하게 하고 있다. 논란이 있었던 만큼 풍수계에도 조경단과 준경묘·영경묘의 풍수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있었고,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특히 준경묘는 길지중의 길지라 인식하고 있었고, 풍수인들의 필수 답사 코스로 인식되고 있다. 준경묘의 좌청룡과 우백호가 주산에 비해 높은 지형·지세를 조선왕조의 권력구조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왕권에 비해 신권이 강한 것도 결국엔 좌청룡과 우백호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현재 조경단과 준경묘, 영경묘 관련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먼저 조경단 관련 연구는 여경훈의 〈완산도형(完山圖形)〉과 〈조경묘경기전도형(肇慶廟慶基殿圖形)〉, 〈전주건지산도형(全州乾止山圖形)〉, 〈조경단비각재실도형(肇慶壇碑閣齋室圖形)〉의 미술사적 의의를 고찰하는 연구가 있다.¹⁾ 준경묘와 영경묘 관련 연구는 산도 연구²⁾와 복식 연구,³⁾ 보존 및 활용 방안,⁴⁾ 풍수 입지와 공간구성,⁵⁾ 원조의 무덤 찾기⁶⁾ 등의 연구가 있

1) 여경훈, 「대한제국기 肇慶壇 營建과 全州 史蹟地圖 제작」, 韓國學中央研究院 석사학위논문, 2022.

2) 황인혁, 정석원, 이창환, 「준경묘·영경묘 산도에 대한 비교 연구」, 『동방학』 3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7, 367-409쪽.

3) 이은주, 이경희, 「1899년 삼척 준경묘와 영경묘 봉심(奉審)에 참여한 관직자 복식 고증」, 『한복문화』 17(1), 한복문화학회, 2014, 73-88쪽.

4) 최장순, 「삼척 준경묘와 영경묘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5, 한국농촌건축학회, 2013, 95-102쪽.

5) 최장순, 「삼척 준경묘와 영경묘의 풍수적 입지와 공간구성」,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

다. 풍수 관련 연구는 최장순의 연구가 있으나, 당시에 논의되던 풍수가 아닌 현대적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발복론에 바탕을 둔 모습조차 확인할 수 있다. 풍수가 시대별로 다른 이론서들이 등장하고 중점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는데, 이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풍수보다 관리들이 풍수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보고서는 당시의 풍수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성이 크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고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만, 여러 사람에 의해 정리된 자료라는 점과 현대적 해석과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명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경단과 준경묘, 영경묘의 영건 과정과 풍수적 특징을 정리한 내용을 각각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당시에 중요하게 고려된 택일에 대해서도 아울러 살펴본다. 『조선왕조실록』과 『조경단·준경묘·영경묘 영건청의궤』 그리고 유학자들의 문집에 나타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조경단과 준경묘 · 영경묘의 역사적 전개

2.1. 조경단의 역사

조선시대에 전주를 풍패지향(豐沛之鄉)이라 하였다. 풍패란 건국자의 고향을 일컫는 말인데, 한나라를 세운 유방(劉邦, BC256-BC195)의 고향인 풍패(豐沛)에서 유래한 말이다.

조경단이 자리한 전주 건지산(乾止山) 일대는 조선 초부터 전주이씨 시조 이한(李翰, ?-?)을 비롯한 왕실 조상들의 묘소가 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1410년(태종 10) 경기전(慶基殿)을 창건한 후에는 진전비보소(眞殿裨

집』 12, 한국농촌건축학회, 2010, 135-142쪽.

6) 이육, 「조선시대 왕실 원조(遠祖)의 무덤 찾기 — 준경묘(濬慶墓)와 영경묘(永慶墓)를 중심으로 —」, 『종교연구』 60, 한국종교학회, 2010, 1-34쪽.

補所)라 하여 특별히 금호(禁護)하였다. 이때 둘레 40리를 경계로 정하고 토성을 쌓았다.⁷⁾ 이후 조경단 건립에 대한 최초 논의는 1765년(영조 41)에 이루어졌다.⁸⁾ 영조는 시조의 무덤을 찾고자 발굴까지 하였으나, 실패하고 1771년(영조 47)에 단(壇) 대신 전주부성 안에 조경묘를 건립하였다. 1782년(정조 6)에는 시조의 묘역에 대해 동서 3,360척, 남북 3,520척의 경계를 정하고 수호하는 절목(節目)을 마련하였다.⁹⁾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에는 ‘문헌이 부족하고 오래되어 시조의 묘소에 관해서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더 이상 시조 묘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다.¹⁰⁾ 실제로 영조 사후에도 건지산 시조 묘역은 공식화되지 못하였다. 건지산에 시조 묘역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득리(李得履) 등의 상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이들은 건지산의 묘역과 달리 시조에 대한 제사를 주장한 것이다.¹¹⁾ 그들은 제후의 시조 제사가 참례가 아니고 이치와 인정으로 따지면 타당성을 갖는



〈그림 1〉 1910년의 조경단
(출처: 조선고적도보)



〈그림 2〉 조경단 지석
(출처: 전주 어진박물관)

7) 『孝宗實錄』 卷9, 효종 3년 8월 21일(庚申)

8) 『英祖實錄』 卷105, 영조 41년 4월 14일(己未)

9) 『正祖實錄』 卷14, 정조 6년 8월 4일(戊辰)

10) 이옥, 「대한제국기 황실의 존숭과 조경단 건립」 『조선시대사학보』 38, 조선시대사학회, 2006, 172쪽 주17.

11) 『英祖實錄』 卷117, 영조 47년 10월 5일(壬申)

다는 것이다. 이를 영조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이후 시조 묘역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대한제국 선포 후 종정원(宗正院)에서 시조 묘역에 대한 관리 문제를 제기한다.¹²⁾ 이에 고종황제는 제단과 비석을 세워 묘역을 영구히 보존토록 결정하고, 내탕고(內帑庫) 5,000원을 내려 제단의 공사 비용으로 사용토록 한다.¹³⁾ 이러한 결정은 대한제국기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황실 추숭사업을 통해 정통성과 권위를 내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¹⁴⁾

조경단의 건립은 묘역 일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참서(讖書)로 의심되는 지식¹⁵⁾의 발견에서 비롯되었다. 이 일은 「독립신문」에 실릴 만큼 특별한 사건¹⁶⁾이었으나, 매천 황현(黃玿, 1855-1910)은 『매천야록』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관(地官)인 북관인(北關人) 주가(朱哥)는 참서(讖書)를 묻어 놓았다가 그것을 발굴하였다. 그는 ‘제(帝)로 칭한 후 300년 동안 국조가 이어진다’고 하였다. 고종은 크게 기뻐하여 그 역사를 중지하지 못하게 하였다.¹⁷⁾

이처럼 조경단은 고종이 황제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내세움과 동시에 대한제국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건립한 것이다.

2.2. 준경묘와 영경묘의 역사

준경묘와 영경묘 관련 자료가 가장 많은 곳은 『조선왕조실록』이다. 당

12) 『高宗實錄』 卷38, 광무 2년 9월 10일

13) 『조경단·준경묘·영경묘 영건청의궤』 「詔勅」 1898년 12월 14일

14) 서진교,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실 추숭사업과 황제권의 강화의 사상적 기초」 『한국 근현대사연구』 19,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98-99쪽

15) 지식의 전면에는 “干—未 白玉午 赤符秦文叔起 口或改三走三返 春玉採崑玉解 馬入海木石崇 天寶十三載九尺下.” 후면에는 “千載之下 中山復起 黃海白馬 己亥五月”라 새겨져 있다.

16) 「독립신문」 1899년 6월 26일 기사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7) 『국역 매천야록』 卷3, 광무 3년 「건지산」

시에 가장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기록물이다 보니 이보다 더 정확한 문헌자료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과 유학자들의 문집을 통해 준경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조 이성계의 즉위 「치제문(致祭文)」에는 5대조인 이양무(李陽茂, ?-1231) 장군의 묘와 관련한 언급은 없다. 이후 준경묘와 관련한 언급이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세종 28년이다.¹⁸⁾ 삼척부 동산의 이릉실(伊陵室)에 어떤 사람이 뼈를 태워 장사하였는데, 의심할 만한 사람 10여 명을 잡아 국문(鞫問)하려고 하니 허락해 달라는 강원도 관찰사의 장계가 올라온다.¹⁹⁾ 이에 대해 세종은 이곳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문헌 고찰을 통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그랬더니 전 삼척 현감을 지낸 김계(金啓)가 이릉실은 동네 노인들에 따르면, 목조의 부모 묘가 있던 곳이라는 주장을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을 통해 전달한다. 이



〈그림 3〉 준경묘

후 이와 관련한 언급이 없다가 세종 29년에 다시 등장하는데, 이양무 장군 묘로 추정되는 곳에 도장한 사람들을 논죄할 것을 주장하지만, 세종은 “동산(東山)의 이릉(伊陵)은 세상에서 목왕(穆王)의 조상 능(陵)이라 전하지마는, 목왕께서 전주(全州)로부터 삼척(三陟)으로 옮겼다가 얼마 안되어 또 함길도로 옮겼으니, 그 사이에 어찌 능실이 있었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없는 일일 것이다. 다만 외가(外家)의 최씨(崔氏)·신씨(申氏)의 무덤과 같은 것도 예전에는 모두 능실로써 일컬었으니, 외가의 오래된 무덤이 어찌 그것이 반드시 없음을 알겠는가.”²⁰⁾라고 하면서 “외가의 무덤에 남몰래 장사 지낸 죄를 반역죄(反逆罪)로써 논죄할 수는 없다.”²¹⁾고 단호

18) 『世宗實錄』 卷114, 세종 28년 11월 11일(乙亥)

19) 『世宗實錄』 卷114, 세종 28년 11월 11일(乙亥)

20) 『世宗實錄』 卷115, 세종 29년 1월 20일(癸未)

21) 『世宗實錄』 卷115, 세종 29년 1월 20일(癸未)

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여기에 무덤을 쓴 사람들에게 다른 곳에 묘를 옮기는 것으로 죄를 대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종 이후에는 묘를 찾아보려는 시도가 없었을까. 『인조실록』에서 그 일단을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처음에 목조(穆祖)의 황고비(皇考妣)가 전주(全州)에서 삼척(三陟)으로 옮겨가 살다가 죽자 그 곳에 장사지내고, 목조는 북도(北道)로 옮겨가 그곳에서 살았다. 그래서 마침내 삼척에 있는 장지(葬地)의 소재를 잃어버렸다.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능이 황지의 노동(蘆洞)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투장(偷葬)을 했다.’고 하나 사실인지 알 수가 없고, 『여지지(輿地誌)』에도 노동과 동산리(東山里)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어느 언덕인지 알 수가 없어, 여러 대의 조정에서 그곳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²²⁾

당시에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 배경에는 함흥으로 이주하면서 다시 찾지 않았기 때문으로, 어떠한 표식도 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조실록』에는 “본조(本朝)의 목(穆)·익(翼)·도(度)·환(桓) 4조(祖)의 선침(先寢) 이외에는 모두 제 위치를 잃어버렸는데, 그 설은 이색(李穡)이 지은 『태조대왕선묘기(太祖大王先墓記)』 안에 실려 있습니다. 태백산(太白山) 노동(蘆洞)에 목조의 고비(考妣) 능침이 있다는 설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거 조종조 때부터 선묘(宣廟)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누차 그곳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²³⁾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입증하는 내용이 『국조보감(國朝寶鑑)』 인조조에 실려 있다. 삼척 황지 노동안에 묘가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경상도 관찰사가 먼저 가서 살펴보고, 다시 예조참판 허계(許啓, 1594-?)를 보내 찾아보게 하였으나, 말갈기 모양의 봉분과 3면이 담처럼 둘러싸인 석지(石地)는 발견하였으나, 입증할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여 봉분을 수축하고 관리인만을 두었다²⁴⁾는 기록이 보인다. 이를 통해 선대의 묘를 찾고자 하

22) 『仁祖實錄』 卷41, 인조 18년 7월 15일(甲午)

23) 『仁祖實錄』 卷43, 인조 20년 9월 26일(癸巳)

는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준경묘와 관련한 기록은 『숙종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²⁵⁾ 노동과 황지가 준경묘라 전하고 있으나 문헌자료가 없고 기한이 오래되어 알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크게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동각잡기(東閣雜記)』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도 성종때 보수공사를 하다가 중지하였는데, 연대가 오래되고 증거할 문헌이 없어 중지시킨 것²⁶⁾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역대 왕들이 대대적으로 수색하였으나 성종 때에 찾은 노동은 진짜가 아니고 진짜 노동은 황지에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의심스러워 결정하지 못하였²⁷⁾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임하필기』는 태조의 4대조 위로는 모두 분실하고 모른다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미수 허목(許穆, 1596-1682)의 『기언(記言)』에는 세종과 성종때에 준경묘를 찾았던 과거와 『여지승람(輿地勝覽)』과 『지리지(地理志)』의 기록을 예로 들면서 목조가 살던 유허가 노동과 동산 사이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하물며 산소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²⁸⁾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후 고종 36년에 “삼척(三陟)의 노동(蘆洞)과 동산(東山)에 있는 두 묘소는 이미 『선원보략(璿源譜略)』에 실려 있다. 이에 우리 열성조(列聖朝)께서도 일찍이 다시 봉축하는 것에 관해 의논한 일이 많아 여러 차례 봉심(奉審)하라는 명이 있었다. 지금 봉심한 재신(宰臣)이 아뢰는 것을 보니 『여

24) 『國朝實鑑』 卷36 인조조3, 인조27년(己丑, 1649)

25) 『肅宗實錄』 卷4, 숙종 1년 10월 21일(乙亥), 『肅宗實錄』 卷40, 숙종 30년 11월 6일(壬寅)

26) 『東閣雜記』 東閣雜記下 本朝璿源錄(二), “蓋年代久遠 又無可徵文籍 故停之也.”

27) 『林下筆記』 卷14 文獻指掌編 穆祖以上陵.

28) 『記言』 卷37 「陟州記事」 蘆洞, 東山二墓記, “母封築 守護而已 嘉靖中我明宗時 因監司尹仁恕狀啓 令每年奉審 置良民四戶 守護墳墓 萬曆初 監司鄭澈圖上墳墓 請修墓 時三公議一依成宗時古事 申明施行 時有正兵林 驛史金戒守等 希望恩澤 造言以爲兩墓俱在黃池上 石物皆在 又有武人姜士龍者上疏 以實其言 士大夫已多信之者 至於經筵官李潑 金功等啓上 請搜訪山中 事皆虛僞 竟不得其實 然自此蘆 東二墓守護奉審之禮因廢 今八十餘年 又有一說 皇妣鄭氏墓 在平昌 此鄉人傳說誤也 考之族圖 孝妃李氏考千牛衛長史諱公肅 妣突山郡夫人鄭氏兩墓 皆在平昌 其祭式亦可見 又非所疑也. 穆祖舊宅遺墟在蘆洞 東山之間 相去各五里六里 今其垣礎尚存 又村老人相傳宅基宅田 況墳墓所在乎.”

지승람』과 『읍지(邑誌)』에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묘의(墓儀)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선조를 추모하는 마음이 또 어찌하겠는가? 옛날부터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은 마치 오늘을 기다린 것 같다. 선조의 뜻을 계승하고 선조의 사업을 이어 나감에는 마땅히 인정과 예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의 묘호(墓號)는 ‘준경(濬慶)’이라 하고, 동산의 묘호는 ‘영경(永慶)’이라 할 것이다. 봉역(封域)을 한정하고 비를 세우며 관원을 두고 재실을 세우는 등의 절차는 조경단 영건청(肇慶壇營建廳)에서 모두 거행하도록 하라.”²⁹⁾는 고종의 어명이 내려진다. 이러한 고종의 주장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준경묘가 이성계의 5대 조부 묘가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맞는 말이 아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준경묘는 세종을 비롯한 역대 왕들조차 이미 실전하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촌로들의 증언에 따라 목조의 부모묘가 삼척의 동산에 있다는 보고에 머물러 있다가, 조선말의 고종에 의해 이곳을 준경묘와 영경묘로 높여 부르고 봉분을 조성하는 등 성역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준경묘로 지정하였으나, 근거 부족을 억지로 『선원보략』과 『여지승람』 그리고 『읍지』 등을 통해 그 의미를 찾고 있다.

3. 조경단과 준경묘 · 영경묘의 풍수 논의

3.1. 전주 조경단의 풍수

전주는 남북이 갈린 지형·지세를 가졌는데, 진산(鎭山)인 건지산(乾止山)이 북쪽에 높이 솟아 있고, 남쪽은 완산 남북산(完山 南福山)이 가까이

29) 『高宗實錄』 卷39, 고종 36년 5월 25일



〈그림 4〉 전주건지산도형
(출처: 장서각)



〈그림 5〉 완산도형
(출처: 장서각)

있다. 동쪽은 고덕산(高德山)과 기린봉(麒麟峰)이 그리고 서방산(西方山)과 청량산(淸涼山)이 서로 자웅을 겨루며 앞뒤로 솟아 있다. 서쪽으로는 가연산(可連山)이 낮게 기봉하였다. 특히 동쪽에 우뚝 솟은 기린봉(麒麟峰)을 중조(中祖)로 36절(節)의 기복(起伏)과 을진·손사(乙辰·巽巳)맥으로 갑묘(甲卯)방에서 순하게 박환(剝換)하여 을진(乙辰)방에서 작뇌(作腦)하였다. 을(乙)방에서 수두(垂頭)하여 입수(入首)가 묘좌(卯坐)이며, 천을(天乙)·태을(太乙)이 귀봉(貴峯)으로 좌우에 옹호하여 산세는 멀리 배합하고, 지덕(地德)은 천년이 융화할 맑은 물이 양방 득수하여 합수한다.

건지산(乾止山)은 산세가 많이 끊어져서 붙인 이름이라 하는데, 서북방이 터져 공결공허(空缺空虛)하였으므로 독을 쌓았다. 이게 덕진(德眞)인데, 안쪽에 조성한 연못이 덕진지(德眞池)이다. 물길의 수세(水勢)는 북쪽 고산(高山)의 남천(南川) 하류가 삼례읍(參禮邑)의 추천(楸川)과 합류한다. 여말선초의 학자 권근(權近, 1352-1409)은 전주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거진이 남북을 갈랐으니	巨鎭分南北
완산부가 제일로 기이한 데라	完山最是奇
천년 동안 왕기가 뭉쳐 있더니	千年鍾王氣
일대의 큰 기업을 열게 되었다	一代啓鴻基
순박한 옛 풍속이 돌아온 오늘날에	舊俗還淳日
훈신이 원님으로 부임한다	勳臣出宰時
옹졸한 이 말이 부끄러우나	贈言慚鄙拙
애오라지 나의 생각 위로하려네	聊以慰吾思 ³⁰⁾

『조경단영건청의궤』에 따르면 궁내부 특진관 이재곤(李載崐, 1859-1943)은 1899년(광무 3) 4월 6일에 전라북도 관찰사 이완용(李完用, 1858-1926)과 단을 설치할 곳을 봉심하고, 조경단의 풍수를 논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건지산은 전주에서 북쪽으로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산봉우리가 뻗어나게 아름답고 풍기가 견고하고 밀집되어 용이 서리고 춤을 추는 듯하니 진실로 천장길지라고 할만합니다.³¹⁾

이재곤은 조경단의 풍수를 극찬하고 있는데, 산봉우리가 뻗어나고 용이 서리고 춤을 추는 듯한 ‘천장길지(天藏吉地)’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후 풍수 관련 언급이 없다가 『조경단영건청의궤(肇慶壇營建廳儀軌)』 「수호절목(守護節目)」 장계(狀啓)에서 다시 풍수를 언급하고 있다.

전주에서 6, 7리 떨어진 곳에 건지산이 있는데, 산기슭의 둘레가 20여리가 되며, 산봉우리 뻗어나게 아름답고 골짜기는 구불구불하며 바깥에서 보면 토성으로 빙 둘러쌓은 흔적이 뚜렷합니다. 무릇 본주는 풍패의 옛그향으로 지세가 평평하며 넓지만 유독 북쪽이 크게 비어 있었는데, 이곳 한 자락

30) 『陽村文集』 卷9 「詩」 送完山府尹尹公 坤

31) 『국역조경단영건청의궤』 「詔勅」, 1899년(광무3) 4월 초6일, 전주역사박물관, 2020, 60쪽, “乾止山在府北十里許 峯巒秀美 風氣固密 龍蟠鳳舞 儘是天藏吉地是白乎旆.”

이 동쪽에서부터 내려와 참으로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모습을 지녔습니다. 건해방(乾亥方)의 장새(障塞)에서 풍기(風氣)가 부성을 지키는 모양을 하고 있어 우뚝하게도 일주의 주맥이 되었습니다.³²⁾

역시 산봉우리가 빼어나게 아름답다고 하면서 ‘용비봉상지형(龍飛鳳翔之形)’이라 논하고 있다. 즉,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모습을 지녔다고 하면서, 한 도시의 주맥 즉 주산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역시 건지산의 지형·지세를 극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지산은 높지도 빼어나지도 않은 평범한 산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찬하고 있는데, 당시 관리들의 일반적인 행태가 아닌가 싶다.

『조경단영건청의계』 「수호절목」 전의(殿儀)에는 비보와 관련한 언급이 보인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덕진지는 전주부의 북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지세를 보건대 건방이 비어 있어 기맥이 새어나가고 있다. 따라서 서쪽으로 가련산에서 동쪽에 있는 건지산까지 큰 제방을 이어 쌓아 기맥이 새는 것을 막았다.³³⁾

이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내용이다. 작은 마을이나 공간이 아닌 거대한 도시의 공결한 부분을 비보하기 위해 큰 독을 건설하였다는 것이다. 주택이나 마을의 비보 정도를 넘어 거대한 도시의 공결한 부분에 독을 쌓아 비보를 실천한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한 공사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토목공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당시 비보풍수가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읍지』에는 건지산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32) 『국역조경단영건의계』 「守護節目」, 狀啓, 전주역사박물관, 2020, 187쪽, “則州之北六七里許 乾止一麓 周回二十餘里 而峯巒秀美洞壑逶迤 外以土城環築形址宛然是白如乎 大抵本州即豐沛舊鄉 地勢平曠 惟北甚虛 而此一枝自東以來 實有龍飛鳳翔之形止於乾亥障塞 風氣拱挹府城 巍然作一州之主脈”

33) 『국역조경단영건의계』 「守護節目」, 殿儀, 전주역사박물관, 2020, 215쪽, “德津池在北十里 地勢乾維空缺 氣脈泄焉 故西自駕蓮山東屬乾止山 築大堤以止之.”

건지산은 진안현 마이산에서부터 뻗어 나온다. 기린봉은 전주부의 동쪽으로 6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서쪽으로 가면 건지산이 나오는데, 산의 빼어난 기운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³⁴⁾

건지산의 태조산은 마이산이고, 중조산은 기린봉이며, 소조산이 곧 건지산인데, 산의 빼어난 기운이 하늘을 찌른다(秀氣插天)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지산은 높지 않은 산으로 빼어난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찬하는 것은 당시 관리들의 성향과도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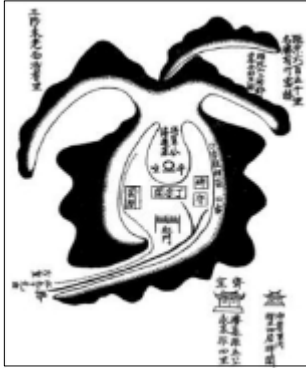
3.2. 준경묘와 영경묘의 풍수

조선시대에 준경묘와 영경묘의 풍수에 대해 여러 관리들에 의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를 통해 살펴본다. 당시 관리들이 인식한 풍수와 보고서에 나타난 특징들을 살펴보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현대 풍수가들의 인식과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다. 먼저 「어제 준경묘 비석 음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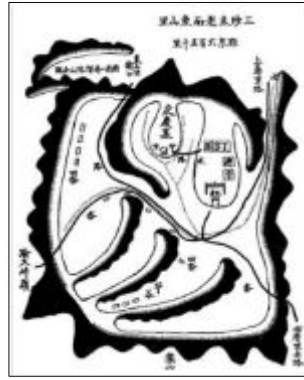
삼척 치소 서쪽 40리 지점에 노동이라는 곳이 있으니, 산이 두타산으로부터 뻗어 내려와 국세가 웅장하고 뛰어나 그 형상이 마치 호랑이가 엮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신방(辛方)을 등지고 을방(乙方)을 바라보고 있는 묘소는 곧 나의 목조 황고께서 잠들어 계신 곳이다.³⁵⁾

34) 『국역조경단영건의궤』 「守護節目」, 邑誌, 전주역사박물관, 2020, 215-216쪽, “乾止山 自鎮安縣馬耳山來 麒麟峰 在府東六里 西行爲乾止山 秀氣插天”

35) 『국역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비문 및 상량문」 濬慶墓 御製陰記, 역사공간, 2012, 145쪽, “三陟治之 西四十里 有曰蘆洞 山自頭陀 以來局勢雄偉形如伏虎 負辛而向乙 卽我穆祖 皇考衣復之攸藏也.”



〈그림 6〉 준경묘 산도
(출처: 장서각)



〈그림 7〉 영경묘 산도
(출처: 장서각)

준경묘 비석 음기에는 태조산과 좌향 그리고 물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태조산은 두타산이고, 좌향이 신좌을향(辛坐乙向)이며, 그 형상이 마치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복호형(伏虎形)’이라고 한다. 이러한 분석은 비교적 단순한 구성으로, 현대 풍수가들의 분석과도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반면에 「준경묘 정자각 상량문」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묘소는 두타산 본 줄기에 바로 이어져 있는데 봉황이 춤추고 용이 날아 오르는 형상으로 동산의 굽고 맑은 기운을 바라볼 정도로 거리가 가까워 하늘이 전단하고 땅이 화합하니 웅장하다. 별들이 두손을 마주잡고 모여 드는 것 같고, 수목이 울창한 삼봉 봉우리는 한문으로서 꿈쩍하지 않고 버티고 서 있으니, 하늘이 내려준 것에 사람이 귀의하여 위대한 네 명의 왕을 배출한 터이다.³⁶⁾

「준경묘 정자각 상량문」에는 태조산과 물형 그리고 한문(捍門)을 강

36) 『국역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비문 및 상량문」 濬慶墓丁字閣 上樑文, 역사공간, 2012, 150쪽, “陀岳之正幹直接 鳳舞龍翔 東山之佳 氣相望乾專坤 翕壯哉 星拱而輻 鬱鬱三峰之峙捍門居然 天與而人歸巍巍 四王之基”

조하고 있으며, 발복론까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물형으로 봉황이 춤을 추고 용이 날아오른 형상인 ‘봉무용상(鳳舞龍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구(水口)의 한문(捍門)을 강조하고 있으며, 네 명의 왕을 배출한 ‘사왕지기(四王之基)’라 극찬하고 있다. 수구의 한문을 강조하는 모습과 발복론을 제시한 부분은 현대 풍수가들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인데, 특히 네명의 왕이 태어났다고 한 부분은 목(穆)·익(翼)·도(度)·환(桓)조와 같이 추증된 왕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감사 손순효의 「양묘기」에는 준경묘의 풍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목조 부친의 능은 신미 태방의 금산이 주산이 되고 좌향은 신좌을향이며 삼록이 수파입니다. 외원은 미신방에서 바다를 향해 갑방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지형은 이귀원으로 뒤에서 감싸고 앞에서 맞이하는 형국인데, 좌청룡과 우백호가 모두 온전하고 품자형의 세봉우리를 이고 있으며, 골짜기 연이어 뻗어 내려오니 벌의 허리와 학의 무릎 형상으로 진룡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좌청룡이 낮고 우백호가 높이 올라와 무신이 배출된 자리이지만 수구의 한문이 높이 우뚝 솟은 세 개의 봉우리이므로 만대에 군왕이 배출될 곳입니다. 형세는 복룡형에 생룡안이고 지명은 노동입니다.³⁷⁾

손순효(孫舜孝, 1427-1497)는 향법(向法)을 먼저 제시하고 봉요(蜂腰)와 학슬(鶴膝) 같은 풍수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진룡지지(眞龍之地)’와 ‘만대거왕지지(萬代居王之地)’라고 하면서 형세는 ‘복용형(伏龍形)’이라고 한다. 손순효는 「어제 준경묘 비석 음기」와 달리 ‘복용형’이라 하고 있으며, 칭찬 일변도인데 ‘만대에 걸쳐 군왕이 배출될 땅’이라고 하는데 이르러 절정을 이루고 있다.

감사 이명한(李明漢, 1595-1645)의 장계(인조 18년 9월 5일)에는 “신들은 비록 풍수의 향방을 알지는 못하지만, 평범한 사람의 안목으로 보아

37) 『국역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례』 「三陟兩墓志」 監司孫舜孝所著兩墓記, 역사공간, 2012, 163쪽, “穆祖 皇考陵 辛未兗金山作主 辛坐乙向 三祿水破 外源未申來海入 甲地二歸 元後擁前 迎龍虎俱全載 品三首骨脈連來蜂腰鶴膝 眞龍之地 此地龍低 虎抗武臣之位 水口捍門 高峙三峰 萬代居王之地 形勢伏龍形 生龍案地 名蘆洞.”

도 산형이 빙 둘러싸 안은 것과 혈도가 웅장하고 장대한 것이 과연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³⁸⁾라고 적고 있다. 누가 봐도 평범한 곳이 아니라는 점에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실제로 준경묘의 경우에는 많은 풍수가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림 8〉 준경묘도
(출처: 규장각)

부사 이헌경의 「노동·동산 양릉기」에는 “삼가 노동을 살펴보니 산 골짜기를 깊숙이 들어가면 넓게 트인 평탄한 땅에 못이 빙 둘러져 있고 산줄기는 경신방에서 뻗어 내려오며 좌향은 신좌을향입니다. 용이 서리고 범이 도약하는 형국으로 조산과 한문이 모두 산천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 곧 만대에 걸쳐 군왕이 배출될 땅입니다.”³⁹⁾라고 보고하고 있다. ‘용반호거(龍盤虎踞)’의 형세로 ‘취기지처(聚氣之處)’로 ‘만대에 걸쳐 왕을 배출할 땅’이라 묘사하고 있다. 감사 손순효와 비슷하게 극찬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경묘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어제 영경묘 비석 음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노동에서 동쪽으로 10리되는 지점에 동산이라는 곳이 있으니 삼척 치소로부터 30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진실로 나의 목조 황비 이씨께서 잠들어 계신 곳이다. 묘방을 등지고 유방을 바라보고 있는 묘소는 산세의 웅위함은 조금 떨어지지만 산이 에워싸 온화함은 뛰어나다.⁴⁰⁾

38) 『국역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三陟兩墓志」 監司李明漢狀啓 庚辰九月初五日, 역사공간, 2012, 169쪽, “臣等雖未解風水 向方以凡眼觀之山 形之環擁 穴道之雄偉 果爲非凡.”

39) 『국역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三陟兩墓志」 府使李獻慶所著蘆洞東山兩陵記, 역사공간, 2012, 176쪽, “謹按蘆洞 深入山谷 開坪池面 庚辛行龍 辛坐乙向 龍盤虎踞 朝山捍門 俱是山川 聚氣之處 則乃萬代居王之地”

40) 『국역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비문 및 상량문」 永慶墓 御製陰記, 역사공간, 2012, 147쪽, “自蘆洞 而東十里 有曰東山 距三陟治三十里 寔我穆祖 皇妃李氏 衣復之藏

영경묘는 준경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지형·지세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영경묘 비석 음기」에도 산세의 웅위함은 준경묘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 사실에 입각한 기술이 오히려 신뢰감을 준다는 점에서 영경묘 비석 음기는 사실성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감사 손순효의 양묘기」에는 영경묘의 풍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목조 모친의 능은 좌향이 진방의 목산에 태향이고 초록이 수파이며, 수원과 명당은 을방의 큰 바다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지형은 사귀원(四歸元)으로 들어와 뒤에서 감싸고 앞에서 맞이하는 형국으로 근안은 낮고 원안은 높아 사위팔방이 공허하게 비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명당은 평정하고 산수의 조공함이 관대하여 산이 움직이고 물은 머무르는 것 같으니 그 가운데는 천자가 태어날 땅입니다. 주산은 빈약하나 안산이 뛰어나니 퇴금적옥(堆金積玉)의 땅으로 형세가 치리(峙縹)하여 온갖 아름다움이 다 모였으니 이 묘소는 한구포아형(寒狗抱兒形)입니다.⁴¹⁾

손순효는 ‘퇴금적옥의 땅’으로 ‘한구포아형(寒狗抱兒形)’이라고 하면서, ‘천자가 태어날 땅’이라 극찬하고 있다. 그러나 영경묘는 <그림 9>와 같이 급경사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산속에 자리하고 있어, 풍수를 논할 요인이 별로 없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을 쓰고 있다. 사실성보다는 과장과 아부가 많이 가미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9> 영경묘

부사 이헌경(李獻慶, 1719-1791)의 「노동·동산 양릉기」에는 “동산

也。坐卯而向 自山勢之雄偉稍遜 而含抱蘊籍勝之奉密”

- 41) 『국역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三陟兩墓志」 監司孫舜孝所著兩墓記, 역사공간, 2012, 165-166쪽, “穆祖皇妃陵 環木山兌向 初祿水破 水源明堂引接 乙方大海八四歸元 後擁前迎 近案低遠案高 四位八方無空缺 明堂平正 山水朝拱寬大 山動水留 其中出天子之地 主山弱案山勝 堆金積玉之地 形勢峙縹 象美俱集 此佳城乃 寒狗抱兒形.”

은 산줄기가 묘방(卯方)에서 경태방(庚兌方)과 묘방으로 뻗어 내려오면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입수를 빙 둘러싸고 있는데, 좌향은 묘좌유향(卯坐酉向)입니다. 맹호가 숲에서 나오는 형국으로 안계, 용호, 명당, 조수가 모두 수려하여 반드시 왕후(王侯)가 배출될 땅입니다.”⁴²⁾라고 보고하고 있다. 항법을 우선 쓰고 다음으로 형국을 논하고 있는데, ‘맹호출림형(猛虎出林形)’이라고 하면서 필시 ‘왕후지지(王侯之地)’라고 역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부사 이헌경도 사실에 입각한 표현보다는 과장과 아부를 포함하고 있어 사실성이 떨어진다.

『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계』에서 여러 관리들이 논한 내용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물형론 비교

구분	비음기	정자각상량문	순순효양묘기	이헌경양묘기
준경묘	伏虎形	鳳舞龍翔	伏龍形	龍盤虎踞
영경묘	웅위함이 떨어짐	-	寒狗抱兒形	猛虎出林形

먼저 준경묘와 영경묘의 물형을 비교하면 <표 1>과 같이 준경묘에 대해 어제 비음기에는 ‘복호형(伏虎形)’을 제시하였다면, 정자각 상량문에는 ‘봉무용상(鳳舞龍翔)’ 형을 제시하였다. 감사 순순효의 양묘기에는 ‘복용형(伏龍形)’을 제시하였다면, 이헌경의 양묘기에는 ‘용반호거(龍盤虎踞)’를 제시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경묘의 물형은 순순효와 이헌경의 양묘기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각각 ‘한구포아형(寒狗抱兒形)’과 ‘맹호출림형(猛虎出林形)’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발복론 비교

구분	비음기	정자각상량문	순순효양묘기	이헌경양묘기
준경묘	-	四王之墓	萬代居王之地	萬代居王之地
영경묘	-	-	出天子之地	王侯之地

42) 『국역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계』 「三陟兩墓志」 府使李獻慶所著蘆洞東山兩陵記. 역사공간, 2012, 176쪽; “東山 則庚兌龍卯作 儒面入首 卯坐酉向 猛虎出林 案界 龍虎明堂 朝水 盡爲秀麗 必是王侯之地”

발복론의 관점에서 제왕지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와 같이 정자각 상량문에는 ‘네명의 왕이 나온 땅’이라고 하였다면, 순순효와 이헌경의 양묘기에는 ‘만대에 걸쳐 왕이 배출될 땅’이라고 하였다. 영경묘에 대해서도 순순효와 이헌경은 각각 ‘천자가 나는 땅’과 ‘왕후의 땅’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준경묘와 영경묘를 답사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풍수적인 특징의 묘사는 입수룡과 좌향 그리고 파구를 공통적으로 논하고 있다. 그리고 물형을 제시하고 발복론까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미 왕이 태어난 조상의 묘이니 왕이 태어난 것은 사실이라 뭐라 할 수 없으나, 지나치게 길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급경사지에 있어 일반 민간의 묘도 쓰지 않을 장소에 자리한 영경묘를 엄청난 명당처럼 묘사한 것은 사실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발복론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는데, ‘만대에 걸쳐 왕을 배출할 땅’ 등의 표현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관리들은 왕에게 보고하는 문서에 과장과 아부를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과장된 언어와 아부를 통해 극찬하고 있다.

3.3. 택일

『조경단·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에 따르면, 조경단과 준경묘·영경묘의 재실과 비각 등의 조성에는 택일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택일관으로 김동표(金東杓)가 주로 활동하고 있다. 택일은 장례원(掌禮院)의 유시를 통해 현장에 전달되고 있으며, 왕에게도 보고되어 결재를 받은 내용이다. 그만큼 당시에 택일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각각의 택일 현황을 살펴보면 <표 3>, <표 4>, <표 5>, <표 6>, <표 7>, <표 8>과 같다.

택일 중에서 개기(開基)는 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파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라면, 정초(定礎)는 기초를 놓는 작업을 말한다. 입주(立柱)는 기둥을 세우는 것이고, 상량(上樑)은 대들보를 들어 올리는 것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를 말한다.

〈표 3〉 조경단

구분	加土	비각 定礎	碑石 세우기	공사 시작
일	5월 25일	6월 21일	2월 1일	4월 8일
시	卯時	酉時	未時	未時
방향	-	북	-	북

조경단의 공사 시작은 <표 3>과 같이 1899년 4월 8일 미시에 북쪽부터 시작한다.⁴³⁾ 가토는 1899년 5월 25일 묘시에 한다.⁴⁴⁾ 비석을 세우는 것은 1900년 2월 1일 미시에 시작하고,⁴⁵⁾ 비각의 정초는 6월 21일 유시에 북쪽부터 진행한다.⁴⁶⁾

〈표 4〉 조경단 재실, 1899

구분	定礎	立柱	上樑
일	4월 28일	5월 2일	5월 3일
시	未時	辰時	辰時
방향	북	북	-

조경단 재실의 정초는 <표 4>와 같이 1899년 4월 28일 미시에 북쪽부터 시작한다. 입주는 1899년 5월 2일 진시에 북쪽부터 시작하고 상량은 5월 3일 진시에 시작한다.⁴⁷⁾

조경단 비각의 정초는 <표 5>와 같이 1899년 6월 21일 유시에 북쪽부터 시작한다. 입주는 6월 28일 신시에 북쪽부터 시작하고 상량은 7월 4

43) 『국역조경단영건의례』 「來照」, 己亥年三月十八日 掌禮院 來照, 전주역사박물관, 2020, 115쪽, “肇慶壇始役吉日 四月初八日未時 先始北方”

44) 『국역조경단영건의례』 「移照」, 己亥年五月初四日 照會 全州營建廳堂上, 전주역사박물관, 2020, 98쪽, “肇慶壇墓上加土吉日 以五月二十五日卯時”

45) 『국역조경단영건의례』 「移照」, 己亥年五月初四日 照會 全羅北道觀察使, 전주역사박물관, 2020, 109쪽, “肇慶壇碑石豎立吉日時 二月初一日未時”

46) 『국역조경단영건의례』 「來照」, 再錄, 전주역사박물관, 2020, 119쪽, “肇慶壇碑閣 定礎六月二十一日酉時先北”

47) 『국역조경단영건의례』 「移照」, 己亥年四月二十五日 掌禮院 來照, 전주역사박물관, 2020, 116쪽, “肇慶壇齋室定礎 四月二十八日未時 先定北礎 立柱五月初二日辰時 先立北柱 上樑同月初三日辰時”

일 신시에 진행한다.⁴⁸⁾

〈표 5〉조경단 비각

구분	定礎	立柱	상량
일	6월 21일	6월 28일	7월 4일
시	酉時	申時	申時
방향	북	북	-

〈표 6〉준경묘 제각

구분	開基	定礎	立柱	上樑
일	8월 9일	8월 17일	8월 29일	9월 2일
시	未時	巽時	巽時	寅時
방향	동	동	동	-

준경묘 제각의 개기는 <표 6>와 같이 1899년 8월 9일 미시에 동쪽부터 시작한다. 정초는 8월 17일 손시에 동쪽부터 시작하고, 입주는 8월 29일 손시에 동쪽부터 시작한다. 상량은 9월 2일 인시에 시작한다.⁴⁹⁾

〈표 7〉준경묘 비각

구분	定礎	立柱	上樑
일	8월 17일	8월 29일	9월 2일
시	申時	酉時	卯時
방향	동	동	-

준경묘 비각의 정초는 <표 7>과 같이 1899년 8월 17일 신시에 동쪽부터 진행하고, 입주는 8월 29일 유시에 동쪽부터 시작한다. 상량은 9월 2일 묘시에 시작한다.⁵⁰⁾

48) 『국역조경단영건의례』「移照」, 庚子年一月二十二日照會 全羅北道觀察使, 전주역사박물관, 2020, 101쪽, “肇慶壇碑閣定礎六月二十七日酉時先北 立柱同月二十八日申時先北 上樑七月初四日申時.”

49) 『국역조경단영건의례』「來照」, 再錄, 전주역사박물관, 2020, 119-120쪽, “濬慶墓 祭閣 開基八月初九日未時先東 定礎同月十七日巽時先東 立柱同月二十九日巽時先東 上樑九月初二日寅時”

50) 『국역조경단영건의례』「來照」, 再錄, 전주역사박물관, 2020, 120쪽, “濬慶墓 碑閣 定

〈표 8〉 준경묘 영경묘 재실

구분	정초	입주	상량
일	8월 22일	9월 2일	9월 4일
시	未時	申時	未時
방향	동	동	-

준경묘와 영경묘 재실의 정초는 <표 8>과 같이 1899년 8월 22일 미시에 동쪽부터 시작한다. 입주는 9월 2일 신시에 동쪽부터 시작하고, 상량은 9월 4일 미시에 거행한다.⁵¹⁾

이상과 같이 조경단과 준경묘, 영경묘의 재실과 비각, 제각의 터 닦기는 생기(生氣)와 개일(開日), 천원(天元) 등 시작을 상징하는 길일을 선택하고 있다. 정초는 삼합(三合)과 사상(四象), 천덕(天德) 등 구조적 안정성과 조화를 상징하는 길일을 활용하고 있다. 상량은 천덕합(天德合)과 월덕합(月德合), 황도길일(黃道吉日), 성일(成日) 등의 덕성을 나타내는 길일로 상징성과 정당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조경단과 준경묘, 영경묘의 역사적 전개와 풍수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경단은 전주이씨의 시조 묘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역대 왕들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던 것을 고종에 의해 추송 사업이 본격화하였다. 준경묘와 영경묘도 이성계의 5대 조부모 묘로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던 것을 고종 때에 본격적으로 추송 사업이 시작되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의 혼란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근거와 자료에 바탕

礎八月十七日申時先東 立柱同月二十九日酉時先東 上樑九月初二日卯時”
51) 『국역조경단영건의례』 「來照」, 再錄, 전주역사박물관, 2020, 120쪽, “瀋慶墓永慶墓齋室 定礎八月二十二日未時先東 立柱九月初二日申時先東 上樑同月初四日未時”

을 둔 사업이 아닌 억지스러운 진행이라 할 수 있다.

당시에 조경단과 준경묘 그리고 영경묘의 풍수에 대한 논의도 다양한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현재 풍수가들의 인식과 비슷한 측면도 있으나 여러 면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왕에게 보고하는 문서이다 보니 현실에 바탕을 둔 풍수라기보다는 다소 과장되고 칭찬 일변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성보다는 들어서 기분 좋을 말들을 많이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료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풍수가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주룡의 행릉 과정과 수구, 한문을 강조하는 모습 그리고 입수룡과 좌향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대에는 유명무실해진 택일도 당시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어느것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작업을 시작하는 방향도 일일이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은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유적이라 소홀히 다루기 쉽지만, 여기에는 성리학에 바탕을 둔 조상에 대한 존경심과 여러 정치적인 상황 요인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당시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풍수와 택일 풍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느것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정성을 담아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조상들의 지혜가 숨어있다. 현대인들이 소홀하기 쉬운 조상에 대한 존경심과 사고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단순히 길지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좋은 길지를 찾고자 하였던 조상들의 사고를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내면에 숨어있는 추송의 의미와 역할을 다양하게 조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자료>

『高宗實錄』 『國朝寶鑑』 『記言』 『東閣雜記』 『世宗實錄』 『肅宗實錄』 『陽村文集』 『英祖實錄』 『仁祖實錄』 『林下筆記』 『正祖實錄』 『孝宗實錄』
『국역조경단영건의례』, 전주역사박물관, 2020. 『국역준경묘영경묘영건칭의례』, 역사공간, 2012. 『국역 매천야록』

<논문>

- 박정해, 「나옹선사와 무학대사의 음택지 소점 연구」, 『미래문화』15, 한국미래문화연구소, 2026, 5~29쪽.
- _____, 「시대별 비보풍수의 활용과 논리의 변화」, 『역사와융합』9(2), 바른역사학술원, 2025, 181~207쪽.
- _____, 「정조 건릉의 산론과 풍수 논의」, 『한국학연구』95,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5, 209~232쪽.
- _____, 「조선 8대 명당 연구」, 『동방학』54,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26, 407~435쪽.
- 서진교,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실 추숭사업과 황제권의 강화의 사상적 기초」, 『한국근현대사연구』 19,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77~101쪽.
- 여경훈, 「대한제국기 肇慶壇 營建과 全州 史蹟地圖 제작」, 韓國學中央研究院 석사학위논문, 2022.
- 이옥, 「조선시대 왕실 원조(遠祖)의 무덤 찾기 — 준경묘(濬慶墓)와 영경묘(永慶墓)를 중심으로 —」, 『종교연구』 60, 한국종교학회, 2010, 1~34쪽.
- 이은주·이경희, 「1899년 삼척 준경묘와 영경묘 봉심(奉審)에 참여한 관직자 복식 고증」, 『한복문화』 17(1), 한복문화학회, 2014, 73~88쪽.
- 최장순, 「삼척 준경묘와 영경묘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5, 한국농촌건축학회, 2013, 95~102쪽.
- _____, 「삼척 준경묘와 영경묘의 풍수적 입지와 공간구성」,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12, 한국농촌건축학회, 2010, 135~142쪽.
- 황인혁·정석원·이창환, 「준경묘·영경묘 산도에 대한 비교 연구」, 『동방학』 3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7, 367~409쪽.

<기타>

「독립신문」 1899년 6월 26일.

Abstract

The History and Pungsu Perspectives of Jogyeongdan and Jungyeongmyo, Yeongyeongmyo

Park, Jeong Hae
(Hanyang University ERICA)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Feng Shui characteristics of Jogyeongdan, Jungyeongmyo, and Yeongyeongmyo. Jogyeongdan, the tomb of the founder of the Jeonju Yi clan, remained unverified in location for centuries, preventing previous dynasties from establishing proper rites. However, King Gojong initiated a full-scale project to honor these sites to solidify the royal line's legitimacy.

Similarly, Jungyeongmyo and Yeongyeongmyo, the tombs of Yi Seong-gye's fifth-generation ancestors, were restored during Gojong's reign after long being lost. Despite various controversies, these projects were driven by the political necessity to overcome the er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turmoil. Contemporary Feng Shui discussions regarding these sites emphasized the progression of the Juryong(主龍), Sugu(水口), and the Hanmun(杆門), while prioritizing the Ipsuryong(入首龍) and Jwahyang(坐向). Notably, Taek-il a practice that has largely lost its significance today was treated with utmost importance. These elements reflect a combination of Confucian ancestor worship and the strategic political maneuvers of the late Joseon period.

Keywords: Jogyeongdan, Jungyeongmyo, Yeongyeongmyo, Feng Shui, Taek-il(擇日)

박정해

소 속: 한양대학교 ERICA 융합산업대학원 동양문화학과

전자우편: jhpark74@hanyang.ac.kr

논문투고일 2026. 04. 16 / 심사완료일 2026. 06. 08 / 게재결정일 2026. 06. 14